

◆ 04년 9월 고1 47~51번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님, 우리 아이 천도(遷度)* 좀 잘 지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엾어서…….”

어머니는 콧물을 찢다. 어제 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시름을 들었을 주지승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승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겠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두 안 오시니 어떡허나.” /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승을 쳐다본다.

“시님, 그만 우리 아일 먼저 해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 그럼 댁부터 해 드릴까…….”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여승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여승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 저녁에 이천 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중략>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승이 씨근덕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댁이 오셨구려. 대강대

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 둔 먹물 들인 모시 장삼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佛前)에서 영전(靈前)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 읽거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보며 영가(靈架)**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 문수의 손길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 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꽂고,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십 환짜리 스무 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꽂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은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뻗뻗한 새 돈은 흡사 백 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런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했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릿속에 피가 팍 차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 께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심히 저주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별안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바탁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총총히 바깥 시식돌(施食石)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꼭 쥐었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항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에 매달리던 문수의 손길이 느껴진다. ㉢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 가서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강게 충혈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 일 없소.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미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 가유?”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뭘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 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A]“택 같으면 중이 먹고 살았수” /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B]“조반을 자셔야 할 텐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좀 기다리실까요?”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 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貨幣)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 입은 그 서장의 부인인 듯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찌렁찌렁하게 밖으로 흘러 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발뚱 일어난다.

[C]“어머니, 그냥 잡시다.”

- 박경리, 불신시대

*천도 : 죽은 혼령을 극락세계로 가게 함.

**영가 : 영혼.

47. 위 글을 <보기>의 방법으로 학습할 때, ‘탐구적 과제’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기 >

소설 읽기는 발견적 과제에서 탐구적 과제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적인 열개를 확인하는, ‘등장 인물은 누구인가, 배경은 언제 어디인가’라는 식의 질문처럼 소설을 읽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발견적 과제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왜 그러한가,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의 소설 이해에 의미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탐구적 과제라 한다.

- 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몇 시쯤인가?
- ② 중이 왜 돈 이야기를 자주 할까?
- ③ 서장택은 돈을 얼마나 냈을까?
- ④ 진영은 왜 절에 왔을까?
- ⑤ 주인공은 누구인가?

4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등장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현재 일어난 일과 회상한 사건을 뒤섞어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주인공의 눈에 비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다른 인물이 경험한 사건을 제3의 인물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49. 위 글에서 공간적 배경을 '절'로 설정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빈부 차별이 없는 공간을 설정하여 현실 사회의 모순과 대조하기 위해
- ② 속세와 단절된 공간에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
- ③ 신성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사태를 그려내어 주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 ④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삼아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 ⑤ 인간 구원의 장소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물이 구원을 얻는다는 암시를 주기 위해

50. [A]-[B]-[C] 대화의 흐름처럼 <보기>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_____ < 보 기 > _____

갑돌 : 야, 김병수. 회비 내랴 때는 안 내고 동창회는 왜 왔냐?
을석 : _____
병수 : 일 없다.

- ① 가서 동창회비 가지고 다시 올래, 아니면 그냥 갈래?
- ② 기다렸다가 남은 기념품이나 하나 얻어 갈래?
- ③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동창회가 늘 적자야.
- ④ 야,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 ⑤ 여길 오다니 너 뻔뻔하구나.

51. <보기>는 이 소설의 끝 장면이다. 위 글의 ㉠~㉣과 <보기>의 ㉤~㉦를 관련시켜 소설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_____ < 보 기 > _____

㉠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문수의 사진이 말뚝이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깡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참나무 가지에 얽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 내리고 있었다.
"㉣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 진영은 중얼거리며 참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

- ① ㉠→㉡ 절에 두었던 사진을 찾아 태우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여 살기로 결심했음을 의미한다.
- ② ㉢→㉣ 문수의 기억을 연기로 날려보내며,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다.
- ③ ㉤→㉥ 문수에 대한 그리움을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할 것을 다짐하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항거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 ⑤ ㉣→㉤ 현실적 한계 앞에 '주저앉고' '내려오는 것'은 현실과 대결에서 패배하였음을 나타낸다.

◆ 16-9평 A형 39~42번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후 ‘나’는 벗인 ‘방(方)’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에 오른다.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 뱀장어를 잡아 파는 한 소년을 만난다. 이후 ‘나’는 ‘방’과 재회하기 위해 청진에 도착하여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노인은 대 끝으로 국 솥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하다가 늘 그러구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

[A]

“네에, 그러세요.”

“그 긴 다섯 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아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애타게 아득하였겠어요.”

“그러셨겠습니까.”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둘씩 이리저리 다 배우기는 하였지마는, 그런 편들 왜 안 그럴 수가 있었겠나요마는, 이제 힘을 줄 테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진 것이니.”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 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건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B]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 아닙니까.”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걸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었습니다그러.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현 너를때기에 강풍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어디 매가 잡니까. 별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딴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편이 조그만한 장터에도 그 험뻐한 꼴들이 뜨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작거리는 **㉠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짙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려고는 말을 끊고 호흡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게 통통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진 걸레 같은 형겼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우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러우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퍼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퍼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함치며, 채두랭이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가지고 나와, 혹은 쪼기도 하고, 혹은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들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에 오 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우며,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떨거나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여넝 살 난 **사넬미***가 엉것바치를 움켜잡고 비어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었다. 그리고 **업힌 것이** 띠 띠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리며 고개를 개우뚝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나.

- 허준, 「잔등(殘燈)」 -

* 고궁살이: 고궁살이. 남의 집 살이.

* 암질(暗質): 어리석은 천성이나 성질.

* 허친거리며: 발을 헛디터 균형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쏠리며.

* 고무산, 아오지: 함경북도에 있는 곳으로, 고무산은 농산물과 목재의 집산지였고 아오지는 석탄 산업 시설이 있었음.

* 사넬미: 사내아이의 방언.

* 띠개: 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을 이르는 방언.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살이를 경험한 적이 없다.
- ②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 ③ ‘행상의 여인네’는 ‘일본인 아낙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주었다.
- ④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 ⑤ ‘사넬미’, ‘어린 계집아이’, ‘업힌 것’ 등 ‘세 어린것’은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40. 다음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활동 다음을 작가가 작성한 창작 노트의 일부라고 가정하자.
㉠~㉣이 [A], [B]에 실현된 양상을 파악해 보자.

- ㉠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낼 것.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 서술과 대화를 결합해 사용할 것.
-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할 것.
- ㉤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할 것.

- ① ㉠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되었군.
- ② ㉡은 [B]에서 ‘사람의 가족은 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 ③ ㉢은 [B]의 ‘마음이 ~ 하였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은 [B]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를 통해 실현되었군.
- ⑤ ㉤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 애’, ‘그것’, ‘그놈’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41. ㉠을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의 회상 속에는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의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고 있다.
- ④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의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 내고 있다.
-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삼자의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말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 ④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 한 것에서, ‘나’가 제삼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08년 9월 고1 28~31번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수남이는 청계천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는 성실한 열여섯 살의 점원이다. 어느 날 배달 가서 세워 놓은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고급 승용차에 흠집을 낸다. 승용차 주인은 수리비용 오천 원을 요구하며 자전거 바퀴를 자물쇠로 채워 놓는다.

수남이는 바보가 돼 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 명청히 서 있었다. 누군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토껴라 토껴. 그까짓 것 갖고 토껴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수남이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에는 좀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왔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거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남이의 편이 되어 외골와글 외쳐 됐다. “도망가라, 어서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남이는 자기편이 되어 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남이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갈기듯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야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남이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 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네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

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남이의 가슴에 가지처럼 걸린다. 수남이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 한다.

“잘 했다, 잘 했다.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 누런 똥빛 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희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굴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네놈 오늘 운 텃다.”

그리고는 수남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불과 턱을 두들긴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수남이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으레 그렇게 했었고, 수남이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운 트기는 커녕 재수 운 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 수남이는 그 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데에서 날라 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피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 책을 집어 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뭐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체에 나 같은 아이

[A]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꿰뚫어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다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질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깊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 좁은 방안을 헤맸다.

수남이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 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중략)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해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났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㉔ 짐을 꾸렸다. 아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㉕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28 <보기>를 [A]로 바꿔 썼다고 가정할 때, 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저녁 내내 안절부절못했다.

- ① 인물이 갈등하는 이유가 선명해졌다.
- ②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가 보다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 ④ 다른 인물의 말이 추가되어 갈등의 초점이 부각되었다.
- ⑤ 자문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고민하는 모습이 강화되었다.

29 다음은 수남이가 주인 영감에게 쓴 편지이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인 영감님께

그동안 영감님 가게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㉔ 일을 끝낸 저녁에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일어난 일로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㉕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 형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저에게 ㉖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㉗ 저는 영감님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제 행동을 칭찬하셨는데, 그건 ㉘ 영감님의 진심이 아닌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남이 올림

- ① ㉔
- ② ㉕
- ③ ㉖
- ④ ㉗
- ⑤ ㉘

30 ㉑~㉚에 담긴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동	심리 및 태도
① ㉑ 멍청히 서 있었다.	⇨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함.
② ㉒ 더 신나게 달렸다.	⇨ 구경꾼들로부터 벗어난 데서 오는 흥가분한 느낌.
③ ㉓ 책을 집어 던졌다.	⇨ 낮에 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음.
④ ㉔ 좁은 방안을 헤맸다.	⇨ 불편한 심정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함.
⑤ ㉕ 짐을 꾸렸다.	⇨ 불편한 심정이 해소되었음.

31 ㉔와 ㉕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감
- ② 도덕이나 양심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
- ③ 험난한 세상을 꿰뚫어 헤쳐 나가려는 자세
- ④ 사회적 규범에 억눌린 인간의 원초적 본성
- ⑤ 궁핍한 삶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의 윤리

◆ 07-9평 15~19번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머니에는 단돈 십 전, 그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쩨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 보내고 말던 최후의 십 전, 안 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통화 한 푼을 얻은 ㉠ 야원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 참위(徐參尉)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잘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진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까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땀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쳐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장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 나 내려다볼 때는, 으레 엄지손가락이 알뜰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때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제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야, 쟈—장.” 하고 연습 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꼭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도 그 십 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이 복덕방에는 흔히 세 늙은이가 모였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잖지 몰라, 늘 갖을 쓰고 앉아서 행길을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방울 큰 노인이 주인 서 참

위다. 참위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는 다섯 해를 늘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력저력 심심파격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 중개업이었다.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팔구 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런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茶屋町) 같은 중앙 시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만 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그 판에 봄가을로 어떤 달에는 삼사백 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에 수십 칸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 회사가 생겨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 셈이다. 그러나 이십여 칸 집에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 참위의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 값에 줄릴 형편은 아니다.

㉢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

서 참위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개와 오늘의 자기, 한낱 가패(家儉)*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작부 따위가 사글세 방 한 칸을 얻어 달래도 네에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위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중략)

박희완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 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쓸쓸히 놀러 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代書業) 운동을 한다고 「속수국어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 그 ㉤ “삼국지 읽던 투로,

“긴—상 도쿄-에 유키이마스카.(김 선생, 어디 가십니까.)”
어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국어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총독부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엮은 가져 뭘 하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톱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걸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

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미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 이태준, 「복덕방」 -

- * 장전: 장롱과 찬장을 파는 가게.
- * 가괘: 부동산 중개인.

15. <보기>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보 기>

- ㄱ.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 ㄴ.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 ㄷ.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다.
- ㄹ.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16. <보기>와 같이 자료 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드팀전: 배, 비단, 무명 같은 온갖 천을 팔던 가게. 인조 직물과 신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함.
- ㉡ 참위: 대한제국기(1897~1910)의 장교 계급.
- ㉢ 대정 팔구 년: 1919~20년. 대정(大正)은 일본 국왕의 연호.
- ㉣ 속수국어독본: 총독부가 일본어 보급을 위해 펴낸 책자. 제목의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당시 우리말은 '조선어'로 불렸음.
- ㉤ 유성기: 축음기. 전축. 당시 유성기는 신문화와 부(富)의 상징.

- ① ㉠을 보니 '드팀전'은 근대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안 초시'는 실패를 자기 운수 탓으로만 돌리고 있군.
- ② ㉡를 보니 '서 참위'의 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점이 그의 처지와 심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군.
- ③ ㉢를 통해 구체적인 연도와 상황을 알 수 있어. 1920년대에도 서울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 흥미롭군.
- ④ ㉣의 맥락을 몰랐다면 '국어'가 우리말인 줄 알았을 거야. 대서방을 차리기 위해 일본어를 익히고 있는 '박희완 영감'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어.
- ⑤ ㉤를 통해 '딸'은 가난한 '안 초시'와는 달리 부자임을 알 수 있어.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었겠군.

17. <보기>는 1930년대 후반 '금광 투기 열풍'의 세태를 묘사한 글이다. 이런 세태에 대한 안 초시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금' '금' '금' 금값의 폭등이 잔칫집같이 조선을 발근 뒤 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룩하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하다못해 몇 천 원짜리의 부자가 수도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 ① 나도 금광으로 큰돈 한번 벌어야겠군.
- ② 복덕방으로 벌어 봤댔자 금광 부자에 비할까.
- ③ 내 손 안의 백통화 한 푼이 금광 열 개보다 낫지.
- ④ 나도 금광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화투패부터 떼 보자.
- ⑤ 금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디서 구해 볼 길이 없을까.

18.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죽음을 앞둔 안 초시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못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해 자탄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 ④ ㉣: 일본어 역량과 어울리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 ⑤ ㉤: 책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19. ㉠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 ② 산 입에 거미줄 치랴.
- ③ 쥐구멍에도 벌 들 날 있다.
- ④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 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 21년 6월 고1 26~28번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톡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구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걷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아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애? 낡은 숨이 돼 그런지, 샅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 숨이 모두 치어서 어떤 텐 훌옷이야. 암만해두 샅 한 벌 사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 오다 한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인제 사드릴라구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셔츠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 하였다. ① 셔츠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닢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테만 오륙 원 먹는 것이어서 50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렵도 없었다. 50전 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출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짹짹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②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뱃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시는 말은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두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 먹게 어서 죽어 달라는 소리로도 들리었다.

“그게 내게 상관있니?”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구 위해 들었게요 그럼?”

[A]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나오. 죽은 뒤에 내가 알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50전이문 왜 안경다리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것을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50전은 또 마코* 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긴요성을 날로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끼었다.

(중략)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완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 년을 상업계에서 눈 안 초시라 출자(出資)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판 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③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완 영감에게 묻던 이상을 시시콜콜히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완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 회사에 넣고 3천 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시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뻐다.

“서 참위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었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네깻 놈이 천생 가깨*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 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㉔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받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백 나오는 노역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천 원의 순이익이 오륙만 원은 될 것이라,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라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안 초시는 으슬으슬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나섰다.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천 원 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龍塘浦)와 다사도(多獅島)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으니 50배가 올랐으니 하고 줄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㉕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려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밀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치었다. 그러나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 볼 길이 없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날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 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물론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 이태준, 「복덕방」 -

- *마코: 일제 강점기 때의 담배 이름.
- *청장: 장부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빚 따위를 깨끗이 갚음을 이르는 말.
- *금시발복: 어떤 일을 한 다음 이내 복이 돌아와 부귀를 누리게 되는 것.
- *가캐: 집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 *축항: 항구를 구축함. 또는 그 항구.
- *옥양목: 빛이 짙 회고 얇은 무명의 한 가지.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B]는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와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고, [B]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는 작품 속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있고, [B]는 작품 밖 서술자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측하고 있다.
- ④ [A]는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⑤ [A]는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B]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7.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형편이 어려운 안 초시를 인색하게 대하는 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㉒: 저렴한 안경다리는 사지 않겠다는 안 초시의 자존심이 드러나 있다.
- ③ ㉓: 안 초시가 전해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㉔: 안 초시의 수고로움을 덜어 주려는 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⑤ ㉕: 예상 밖의 결과로 딸과 마주할 자신이 없는 안 초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28. 다음은 윗글이 창작될 당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일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전국은 지금 ...

일본의 축항 사업 발표 후,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한탕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황금광 사업으로 불리는 축항 사업에 몰려들고 있다. 1932년 8월, 중국 동북부와 연결되는 철도의 종착지이자 축항지로 나진 이 결정되자,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브로커들로 나진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잘못된 소문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여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①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으로 보아 안 초시는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에 빠르게 투자하였것군.
- ② 안 초시가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며 부추기는 모습에서 한탕주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안 초시의 딸이 ‘연구소 집’을 담보로 ‘3천 원’을 마련한 것은 당시의 투기 열풍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모씨가 ‘축항 후보지’에 대해 ‘연극’을 꾸민 것은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것군.
- ⑤ 안 초시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밀 도리듯’ 한다고 ‘탄식’하는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어두운 모습을 엿볼 수 있군.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1935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2년간의 이야기로, 궁핍화가 극에 달해 연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현실을 중요한 문제로 삼은 작품이다. 그런데 채만식이 「탁류」에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대한 작가의 민감한 시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토착적 시스템의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다가 식민지적 상황 때문에 더욱더 굴곡진 수많은 우여곡절에 주목하였다. 채만식의 민감한 시선은 「탁류」에서 집중적으로 그려진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과 사물을 환급의 가능성으로만 파악하는 자본주의의 기제가 인간의 순수한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이윤 추구의 원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초봉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태수는 그런 초봉에게 끊임없이 베풀면서 초봉을 그녀의 ㉠ 고유한 영토로부터 끌어낸다. 그런 베풀을 순수 증여라고 해도 될까. 아니, 꽤나 깊은 의도를 숨기고 행한 증여이니 그것은 사악한 증여라고 해야 할 터이다. 하여간 태수는 끊임없이 증여하고 선물 하면서 초봉의 고유한 모럴,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조금씩 무언가를 축적해 가는 삶의 방식을 회의를 빠뜨린다. 그리고 그 증여 행위를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초봉의 호의적인 시선을 얻어낸다. 하지만 그 순간이란 ㉡ 하나의 변곡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초봉에게 증여한 것의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초봉을 타락한 교환가치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초봉이 교환의 정치경제학에 익숙해질 무렵, 제호가 초봉에게 접근한다. 제호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초봉의 육체를 돈으로 측량하고 그와의 거래를 제안한다. 초봉 또한 제호가 자신의 상품성을 그만큼 높게 봐 주자 이 거래를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비록 그 교환이 서로 간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어도 이 거래 이후로 초봉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초봉에게 형보가 나타나 초봉과 송희 모녀의 호강을 구실로 가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잉여의 성적 착취를 반복한다. 형보는 이 타락한 사회에 동화된 초봉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초봉의 거부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초봉의 몰락’은 이렇듯 초봉이 교환의 정치경제학을 자기화함으로써 ㉢ 영혼이 없는 자동인형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봉은 아버지 정주사가 미두*로 일확천금을 꿈꾸듯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어 나갔다. 자신에 대한 착취에 강렬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특히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기제의 ㉣ 노획함과 집요함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탁류」에는 추악한 세상의 탁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채만식은 「탁류」에서 그 특유의 냉정한 태도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삶의 양태들을 냉소하고 풍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의 형식 혹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능케 할 잠재적 가능성이거나 가치들을 끈질기게 탐색해 내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란다.”라는 ㉤ 휠덜린의 말

좀 뒤집어 말하자면, 「탁류」가 세상을 위협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위협 속에 같이 자라는 구원의 힘을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이라. 그 구원의 가능성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초봉이 형보를 죽였다는 점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탁류」에는 개념의 위계를 갖춰 계기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나 타락한 교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딸 송희를 낳으면서 초봉이 어머니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자유주의자이자 냉소주의자인 계봉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철칙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승재가 남에게 그저 베풀려고 하는 것도 모두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들 중에서도 초봉과 승재의 삶에서 드러나는 증여의 삶은 「탁류」가 타락한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우리는 '증여의 윤리'라고 부를 수 있을 터이다.

* 미루(米糶): 미곡의 시세를 이용하여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삶의 양태에 대한 소설가의 비판적 인식을 추적한다.
- ②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소설가의 내면 심리를 전착한다.
- ③ 궁핍으로 인한 연명의 문제보다 윤리의 문제를 중시한 소설가의 인식을 비판한다.
- ④ 인간의 존재론적 모순에 대한 소설가의 염세적 시선에 주목하여 삶의 의미를 반추한다.
- ⑤ 현실을 대하는 소설가의 이중적 태도를 인물이 표방하는 이념의 분석을 통해 통찰한다.

11. 「초봉」의 몰락 과정과 관련하여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본주의 기제로부터 영향을 받기 이전에 가족에 대한 증여자로서 '초봉'이 지녔던 순수한 영혼을 환기한다.
- ② ㉡은 '초봉'이 노동에 의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으면서 교환의 정치경제학이라는 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 ③ ㉢은 '초봉'이 물신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인간과 사물을 환금의 가능성으로만 파악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은 '초봉'의 몰락 과정이 순진성의 세계를 끈덕지고도 교활하게 파괴하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과 상통함을 보여 준다.
- ⑤ ㉣은 구원의 힘이 역설적 방식으로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날 힘이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 생성되어 가기도 함을 시사해 준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계봉이는 승재가 오늘도 아침에 밥을 못 하는 눈치를 알고 가서, 더구나 방세가 밀리기는커녕 이달 오월 치까지 지나간 사월달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돈을 내놓는 것인 줄 잘 알고 있다.

계봉이는 승재의 그렇듯 근경 있는 마음자리가 고맙고, 고마울 뿐 아니라 이상스럽게 기뻐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굴이 깨끗하게 들려지지 않을 것같이 무색하기도 했다.

“이게 어인 돈이고?”

계봉이는 돈을 받는 대신 뒷짐을 지고 서서 준절히 묻는다.

“그냥 거저…….”

“그냥 거저라니? 방세가 이대지 많을 리는 없을 것이고…….”

“방세구 무엇이구 거저, 웅색하신데 쓰시라구…….”

계봉이는 인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까딱까딱하더니, “나는 이 돈 받을 수 없소.”

하고는 입술을 딱 다문다. 장난엿말로 듣기에는 음성이 너무 강경했다.

승재는 의아해서 계봉이의 얼굴을 찡찡이 건너다본다. 미상불, 여전한 장난꾸러기 얼굴 그대로는 그대로지만, 그러한 중에도 어디다 없이 기색이 달라진 게, 일종 오만한 빛이 드러났음을 볼 수가 있었다.

승재는 분명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혹시 나의 뜻을 무슨 불순한 사심인 줄 오해나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비록 마음이야 담담하지만 일이 좀 창피한 것도 같았다. (중략)

계봉이는 문제된 오 원짜리 지전을 내려다본다. 아무리 웃고 말았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집어 들고 들어가기가 좀 안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시 안 가지고 가기는 더 안되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집어 든다.

- 채만식, 「탁류」 -

- ① 초봉을 전락시킨 돈은 이윤 추구 원리의 작동음, 승재가 계봉에게 건네는 '돈'은 순수 증여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호는 속물주의적 논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승재는 '마음'의 가치를 통하여 자신의 선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형보는 돈의 위력을 믿고 초봉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봉은 자존심 때문에 '근경 있는 마음자리'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태수의 과잉 증여와는 달리, 승재의 증여는 대가를 바라는 '불순한 사심'을 지니지 않은 것이기에 타락한 교환 세계에서 벗어날 희망의 표지로 볼 수 있겠군.
- ⑤ 교환의 정치경제학을 무의식적으로 자기화한 초봉과는 달리, '입술'을 딱 다무는 계봉의 모습은 '증여의 윤리'를 의식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